

“무한도전 방학 끝…드루와~”



노홍철 복귀 여부 시청자 관심 집중

‘대결! 하나하나’ ‘국민 내각’ 등

다양한 아이템에 새로운 레전드 기대

“이 순간부터 새로운 레전드를 만들어봅시다!”

MBC TV 간판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이 7주간의 방학을 마치고 오는 18일 컴백한다. 유재석은 지난 11일 레전드 특집 마지막회에서 ‘새로운 레전드’를 언급하며 기대감을 한껏 고조시켰다. 시청률 1위 자리도 바로 탈환했다.

10년간 개근해온 ‘무한도전’인 만큼 7주간의 휴식은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일단 가시적인 변화는 13일 일대한 막내 광희의 빈자리다. 사전 촬영분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화면에 나오겠지만, 시청자들은 벌써부터 노홍철의 복귀 등을 언급하며 다양한 추측을 쏟아내고 있다.

18일 컴백 방송분으로 예고된 ‘대결! 하나하나’ 등 멤버간 조합을 엿볼 수 있는 아이템과, SNS를 통해 이미 예고된 ‘국민내각’ 등 시대 상황과 트렌드를 절묘하게 결합한 새로운 특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년만의 광희 빈자리…첫 4인 체제? 또는 ‘그 녀석’의 귀환? =2015년 봄 ‘식스맨 프로젝트’로 합류한 광희가 2년 만에 ‘무한도전’을 떠났다. 제작진은 앞서 ‘굿바이 광희’란 제목의 영상을 통해 “놓지 않을게”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하차보다 기다림이 예상되는 대목이었다.

그럼에도 2년은 짧지 않은 시간이다. 게다가 광희가 빠진 지금, ‘무한도전’은 최초로 4인 체제가 됐다. 물론 양세형이 든든한 몫을 해주고 있지만, 어쨌든 정식 MC는 아닌 상황이다.

7주간 쉬었으니 바짝 달려야 하는 시점에서 이들끼리만 프로그램을 끌고 가는 건 제작진이나 MC들에게 부담일 수 있다.

막내로서 재기발랄한 캐릭터에 충실했던 광희의 방송분량이 끝나면 허전한 느낌이 가중될 수도 있다.

그래서 시청자들은 자연스럽게 ‘그 녀석’ 노홍철의 복귀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

노홍철은 2014년 11월 음주 운전으로 물의를 일으켜 하차했고, 자숙 뒤 다른 예능프로그램에 속속 복귀했지만 ‘국민 예능’으로 불리는 ‘무한도전’에는 아직 돌아오지 못했다.

‘무한도전’에서 ‘돌+아이’라는 애칭을 얻은 노홍철은 대체 캐릭터를 찾기 어려운 멤버이긴 했다. 이번 레전드 편만 봐도 그가 차지해온 존재감은 상당했다. 멤버들도 종종 ‘그 녀석’으로 그를 언급하며 그리움과 아쉬움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제작진이 레전드 특집을 통해 전방위로 활약한 노홍철을 자주 등장시킨 것으로 보아 복귀는 결국 그의 의사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물론, 갈수록 엄격해지는 음주 운전 에 대한 대중의 차가운 시선은 넘어야 할 벽이다.

이에 대해 ‘무한도전’ 측은 14일 “광희의 입대로 인해 결원이 생긴 멤버 자리를 어떻게 채울지에 대해서도 기존 멤버들과 충분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전했다.

◇컴백은 게임으로 뭉뚱가…‘국민내각’ 등 뭉집 큰 특집도 예고 =김태호 PD는 10년간 한 번도 쉬지 않으면서 늘 신선한 아이템을 쏟아냈다. 물론 휴식이 전혀 없었던

통에 아이템별로 재미의 편차가 크다는 지적도 있지만, 그의 새로운 시도는 늘 대중 사이에 회자했다.

이번엔 7주나 쉬었으니 상당히 많은 아이템을 축적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단 시작은 뭉뚱가다. ‘무한도전’ 측은 이날 18일 컴백 방송으로 ‘대결! 하나하나’를 예고했다.

멤버들이 평소 즐겨하던 작은 게임에서 시작했지만, 점점 더 큰 대결 종목들을 제시하면서 끝없는 대결이 펼쳐진다는 내용으로 ‘무도’ 특유의 멤버간 익살스런 조합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휴식기 중 한 차례 공개된 특집 ‘국민내각’도 있다. ‘국민내각’ 특집은 지난 연말 방송에서 유재석이 신년 특집으로 예고한 바도 있다.

제작진은 SNS를 통해 “여러분이 바라는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인가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 꼭 있었으면 하는 새 법안은 무엇인가요?”라고 말해 어지러운 시국에 희망을 주려는 기획의도를 엿볼 수 있다.

‘무한도전’은 방학 전에도 시국과 연관된 목소리를 꾸준히 내온 예능프로그램 중 하나였다. ‘국민내각’ 특집을 예고한 것은 본격적으로 국민 눈높이에서 호흡하는 예능이 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PD만의 시대 상황과 트렌드미학의 절묘한 조합이 또 성공할지, 시청자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진지함을 담은 특집과 편안한 웃음을 담은 특집간 균형 있는 배치를 통한 강약 조절도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뜻뜻한 첫사랑 설렘 느껴보세요”

日 만화 리메이크 ‘그녀는 거짓말을~’ tvN 20일 첫 방

봄바람과 함께 뜻뜻한 첫사랑 이야기가 찾아온다. 음악이 주요 소재로 등장하니 금상첨화다.

tvN이 오는 20일 밤 11시 첫선을 보이는 ‘그녀는 거짓말을 너무 사랑해’는 뮤지션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청춘 로맨스 드라마다. 배우 이현우(24)와 레드벨벳의 조이(21)가 남녀 주인공으로 호흡을 맞춘다.

동명의 일본만화를 리메이크한 ‘그녀는 거짓말을 너무 사랑해’는 정체를 숨긴 천재 작곡가 강한결과 그에게 첫눈에 반한 여고생 윤소림의 이야기다.

이현우가 연기하는 강한결은 음악에 상처받은 천재 작곡가다. 최고 인기 밴드 크루드플레이의 모든 곡을 작곡하고 프로듀싱하는 숨겨진 멤버지만 음악 때문에 인생이 순탄치 않은 인물이다.

조이는 천상의 목소리를 가진 여고생 윤소림을 연기한다. 평범한 소녀지만 타고난 음색, 풍부한 성량, 정확한 음정 등 노래를 부를 때는 누구보다 특별해진다.

드라마는 윤소림이 ‘작곡가 지망생’이라고 신분을 속인 강한결에게 첫눈에 반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다. 윤소림은 강한결을 향해 거짓없이 ‘직진’한다.

제작진은 14일 조이에 대해 “귀를 사로잡는 청량한 음색으로 캐릭터와 완벽한 싱크로율을 자랑한다”고 소개했다.

이들 외에 이정진이 가요계의 ‘미디스 손’ 최진혁 역을 맡았고, 뮤지컬 배우 홍서영이 세시한 디바 채유나를 연기한다. 또 최민수, 임예진, 박지영, 김인권 등도 출연한다. 연출은 MBC TV ‘결혼계약’, ‘오만과 편견’ 등을 연출한 김진민 PD가 맡았다.

김 PD는 “따올리는 것만으로 설레는 가장 순수한 시절의 첫사랑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tvN은 “사랑에 서툰 천재 작곡가, 사랑에 직진하는 여고생, 사랑까지 잘하는 완벽남, 질투에 휩싸인 천재 등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다채로운 모습을 통해 설렘을 유발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어 “특히 첫사랑에 용감하고 순수한 소녀의 모습은 잊고 있던 순정을 소환하며 입가에 미소를 피어나게 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1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 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연제나 불날>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아침연속극 <아침 쏘리 강남구>
9	30 KBS 뉴스	00 TV스쿨 <그 여자의 바다>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중계방송 제57주년 3.15 의거 기념식 3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30 코리아인포그래픽 플러스(재)	00 수목드라마 <김과장> (재)	00 월화드라마 <역적 : 백성을 훔친 도적>(재)	00 열린TV 시청자 세상
12	00 KBS 뉴스 12		00 MBC 정오뉴스 20 수목드라마 <미생나인>(재)	00 SBS 12 뉴스 30 KBC 12뉴스 50 TV블로그 꿈지락 55 테마스페셜
1	0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5 네트워크기획 문화산책 55 TV쇼 진품명품(재)	00 비타민 (재)		55 닥터 365
2	55 2017 FIFA U-20 월드컵 코리아 본선 조추첨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 (재)	20 텔레문스터 (재) 30 드림 주니어 스페셜	00 2시, 뉴스브리핑
3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지원	00 2017 FIFA U-20 월드컵 조추첨식	00 2017 FIFA U-20 월드컵 조추첨식
4	00 4시 뉴스집중	30 여유만만 (재)	00 프리파라 2 30 리얼스토리 논	00 4시, 뉴스브리핑
5	00 KBS 뉴스 5 30 전곡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톨러코스터보이 노리 30 강력추천 배틀 트립	00 MBC 이브닝 뉴스	00 2017 ISU 피겨 주니어 세계선수권 남자소트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2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15 건강한 토코소 내 몸을 부탁해
7	00 KBS 뉴스7 35 공감다큐, 사람	50 일일드라마 <다시, 첫사랑>	15 일일연속극 <행복을 주는 사람> 55 MBC 뉴스데스크	15 TV블로그 꿈지락 20 일일드라마 <사랑은 방울방울>
8	20 집중 인터뷰 이사람 25 일일연속극 <빛나라 은수>	30 글로벌24 55 살피하는 남자들	55 MBC 일일드라마 <황금주머니>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경제발굴단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시사토론 '10' 55 숨터	00 수목드라마 <김과장>	00 수목드라마 <자제발광 오피스>	00 드라마 스페셜 <사임당, 빛의 일기>
11	00 KBS 뉴스라인 40 힐링다큐 3부작 나무야 나무야	10 추적 60분	10 라디오스타	10 웃음을 찾는 사람들
12	35 동행 (재)	1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세상의 모든 다큐	35 MBC 뉴스 24 55 함께사는세상 희망프로젝트 나누면 행복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양초보 영어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자연의 색 중국 주자이거우)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플라워링 하트(I) 07:30 뽀롱뽀롱 뽀로로 07:45 출동! 슈퍼윙스 08:00 덩동댕 유치원 1~2 08:30 똑딱맨 08:45 Why - 최고다! 호기심딱지 09:00 주사위 요정 큐비쥬 09:15 엄마 까투리(재) 09:30 물랑	09:40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재) 10:30 한국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코다리 두부찜과 오이 양파무침>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2:40 지식채널 e 12:45 EBS초대석(재) 13:40 국한직업(재) 14:3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15:00 그림을 그려요 15:05 두기 탐험대 15:20 마샤와 곰	15:35 모피와 친구들 15:45 레전드하어로 삼국전 16:15 허풍선이 과학소(재) 16:30 Why - 최고다! 호기심딱지(재) 16:45 덩동댕 유치원 1~2(재) 17:15 뽀롱뽀롱 뽀로로 17:30 로보가 놀리 17:45 똑딱맨(재)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 1~4 19:00 어벤저스: 올트론 레볼루션 19:30 EBS 뉴스 19:50 EBS 스페셜 프로젝트 20:50 세계테마기행	<은빛 설원의 전설 중국 네이멍구 - 흰 눈에 숨은 초원 거스컥터> 21:30 한국기행 <남도에 가다 3부 - 불 뿜는 오심준기의 여수> 21:50 EBS 다큐 프라이밍 <글로벌 인재전쟁 3부 - 용의 숨겨진 발들> 22:45 국한직업 23:35 장수의 비밀 24:25 지식채널e 24:30 EBS 초대석 <인간은 별 먼지에서 시작됐다 - 천문학자 이명현>
---	--	---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15일(음 2월 18일 辛丑)

 子	48년생 마음에 내키지 않더라도 응하는 것이 낫다. 60년생 순조로워 보이지만 결과는 미흡하다. 72년생 차분한 마음 자세와 포용력이 절실히 요청된다. 84년생 가벼운 징후가 현상이나 비화되지 않도록 하자. 행운의 숫자 : 43, 47	 午	42년생 충동적 판단이라면 곧 후회하리라. 54년생 자연스러운 것이 가장 무난하다. 66년생 동시 다발적으로 속출할 수도 있다. 78년생 급변하는 도량이나 기만하게 대처하자. 90년생 편의에 치우친다면 비능률적일 수밖에 없다. 행운의 숫자 : 69, 57
 丑	49년생 이변을 자초하는 동세가 돼버릴까 두렵다. 61년생 혼신의 힘을 경주한다면 현재의 난점을 극복하게 되리라. 73년생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알찬 결과를 보인다. 85년생 형세를 좌우할 만한 열쇠를 거머쥐게 된다. 행운의 숫자 : 40, 56	 未	43년생 취약점에 대해 관심을 가져라. 55년생 상로 간에 배려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유지해 나갈 수 있다. 67년생 세밀하게 다루어야 할 대목이다. 79년생 사소함을 조율해야 대국에 임하느니라. 91년생 체계적이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25, 64
 寅	50년생 그 어떠한 집착도 버리는 것이 이로우니 꾀도난마 해아 할 것이다. 62년생 고생한 만큼 배려한 대가가 주어지리라. 74년생 작은 현상이나 대범하게 넘길 수 있어야겠다. 86년생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성사된다. 행운의 숫자 : 10, 41	 申	44년생 핵심에 대한 안배를 잘한다면 부가적 이익도 따를 것이니라. 56년생 성공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다. 68년생 과감해야만 실행의 효과가 증폭될 것이다. 80년생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편하다. 행운의 숫자 : 65, 49
 卯	51년생 개별적 인식이 명확해야 한다. 63년생 확고부동한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다. 75년생 불가항력이나 숙명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다. 87년생 일시적인 현상이나 전혀 패념지 말라. 행운의 숫자 : 13, 99	 酉	45년생 이해관계인의 파격적인 제의가 보인다. 57년생 흉보다는 길짐이 훨씬 더 강하니 안심하고 응해도 된다. 69년생 뜻밖으로 이층의 행운이 따르리라. 81년생 자생력을 키워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행운의 숫자 : 02, 14
 辰	52년생 목전에 벌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과민하게 인식한다면 오관할 수도 있다. 64년생 지인의 협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리라. 76년생 점점 수월한 단계로 접어든다. 88년생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67, 79	 戌	46년생 향상시킬 수 있는 호기가 마련된다. 58년생 관세가 변하면 대처 방안도 달라질 수밖에 없느니라. 70년생 인식했다면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피하는 것이 낫다. 82년생 특별히 신경 쓰지 않으면 무너져 내릴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3, 15
 巳	53년생 유사한 형태로 반복될 뿐이다. 65년생 멀리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가장 가까운 곳을 세심히 살펴보자. 77년생 하나의 현상이 대부분의 행국에 영향을 미치리라. 89년생 시선을 사로잡는 매력기 작용한다. 행운의 숫자 : 80, 91	 亥	47년생 과감한 행동이 절실한 때이다. 59년생 예견했던 바와 거의 일치할 것이다. 71년생 앞서서 걱정해 봤자 허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83년생 천신만고 끝에 목적을 달성하고 매우 기뻐하는 조우이니라. 행운의 숫자 : 04, 85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